

『문법 교육』 제19호(2013.10.), 한국문법교육학회

## 시제의 학교문법 기술\*

- 그 문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하여

이정택

### 차례

1. 머리말
2. 하위 범주 설정의 문제
  - 2.1. 하위 범주 설정의 역사
  - 2.2. 대안 모색
3. 동일 형식 다(多) 의미의 문제
4. 상대 시제 설정의 문제
5. 교과서 간 차이의 문제
6.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말 시제에 대한 기술은 주시경(1910)과 최현배(1937)까지 소급될 수 있다. 그러나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정설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우리말의 시제를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로 그 하위 범주를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학술서와 논문들은 이와는 판이한 그리고 다양한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시제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이처럼 다양한 가운데 표준화를 추구해야 하는 교과서들은 과연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시제를 기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국어문법 교과서의 시제 기술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현재 고등학교 문법 교과는 주로 검인정을 통해 보급되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을 통해 교수·학습된다. 그리고 이들 책에 실린 문법 내용의 기간은 1985년 간행된 최초의 국정 문법교과서인 ‘고등학교 문법’에 있으며 현재의 교사용 지도서 및 참고서 등도 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85년 판 ‘고등학교 문법’과 현행 ‘독서와 문법’ 그리고 현행 교과서 직전의 마지막 국정 문법 교과서인 2002년 판 ‘고등학교 문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 2. 하위 범주 설정의 문제

### 2.1. 하위 범주 설정의 역사

1968년 문교부 검정을 거쳐 사용된 최현배의 ‘인문계고등학교 새로운 말본’은 동사의 시제를 ‘으뜸때’, ‘끝남때’, ‘나아감때’, ‘나아가기 끝남때’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다시 현재, 과거, 미래로 삼분함으로써 총 12가지의 시제를 설정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사용된 이송녕의 ‘인문계고등학교 문법’은 현재, 과거, 미래에 대과거와 과거미완을 더한 5가지의 하위범주를 가진 시제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문법서들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여타 범주도 마찬가지여서 당시 학교 교육에 큰 부담과 혼란을 주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985년 국정의 ‘고등학교 문법’이 간행되었다.<sup>1)</sup>

국정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앞선 문법서들과 달리 ‘동작상’과 ‘시제’의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아래 인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로 단순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하는 이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시의 앞뒤를 제한하는 것을 시제(時制)라 한다. 1-(가)는 과거 시제(過去時制), 1-(나)는 현재 시제(現在時制), 1-(다)는 미래 시제(未來時制)로 된 문장이다.

[고등학교 문법(1985), 94쪽]

그리고 각각의 범주를 표시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형용사와 동사 및 서술격 조사 등 품사별로 나누어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이러한 기술 태도는 이후의 교과서들에 의해 답습된다. 즉 마지막 국정 문법 교과서인 2002년 판 ‘고등학교 문법’과 2011년 간행되어 현재 사용되는 4종의 검인정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모두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를 표시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형태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간 인식이 현재, 과거, 미래로 삼분되는 것이기에 시제를 삼분하는 위와 같은 체계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법범주란 문법적 형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인 만큼 특정 범주를 표시하는 일정한 형식이 없거나 동일한 형식이 서로 다른 시간 범주에 두루 사용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우리말의 시간 표현 요소들은 아래 예문 (1)에서와 같이 특정한 시간 범주를 표현하는 일정한 형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2)에서처럼 동일한 형식이 서로 다른 시간 범주에 사용되기도 한다.

1) 남기삼·고영근(2011), 446~447 쪽 참조.

- (1) 가. 사람들이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ㄴ- ?)  
 나. 그 사람은 요즘 상당히 한가하다. (없음)  
 다. 김 씨는 현재 중앙정부 고위관리다. (없음)
- (2) 가. 서울은 지금 많이 덥겠다. (현재)  
 나. 서울은 그때 많이 더웠겠다. (과거)  
 다. 서울은 앞으로 많이 덥겠다. (미래)

위 예문 (1)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를 표현한다고 하는 문법 요소들이 불분명하고, 미래의 대표적인 형식으로 여겨지는 ‘-겠-’은 실제로 현재, 과거, 미래 시간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1985년 판 국정의 ‘고등학교 문법’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학교 문법서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법이 문법적 형식을 중시하는 학문인 만큼,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제를 삼분하는 기술 태도는 모순된 일임에 분명하다.

## 2.2. 대안 모색

우리말 시제에 관한 학계의 기존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말의 시제를 일반적인 시간 범주인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 살피는 입장이다. 이미 확인한 것처럼 많은 문법 교과서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둘째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시제 형태소로 여겨져 온 형식들을 상(相, Aspect)이나 법(法, Mood)을 표현하는 요소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말 시제 범주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남기심(1972) 등이 이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의 삼분법이 아닌 과거 대 비과거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익섭·임홍빈(1983)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들 중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과거와 비과거로 나누는 이분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입장을 취할 때 시제 관련 형태소들의 특징을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문 (1)을 통해 살핀 것처럼 현재를 나타내는 고정된 문법 형식을 찾기 어렵고, 아래 (1)'가 보여 주듯이 동사에 한해 종결형에서 현재를 나타낸다고 하는 ‘-는-’마저도 ‘하십시오체’ 등의 활용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sup>3)</sup>

- (1) 가. 사람들이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 (-ㄴ-
- 나. 그 사람은 요즘 상당히 한가하다. (없음)
- 다. 김 씨는 현재 중앙정부 고위관리다. (없음)
- (1)'가. 사람들이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봅니다. (하십시오체)
- 나. 그 사람은 요즘 상당히 한가합니다. (하십시오체)
- 다. 김 씨는 현재 중앙정부 고위관리입니다. (하십시오체)

또한 예문 (2)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미래의 대표적 표현 형식으로 여겨지는 ‘-겠-’이 실제로는 모든 시간 범주에 걸쳐 두루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 시제의 설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가. 서울은 지금 많이 덥겠다. (현재)
- 나. 서울은 그때 많이 더웠겠다. (과거)
- 다. 서울은 앞으로 많이 덥겠다. (미래)

반면에 아래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거’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2) 이익섭·임흥빈(1983), 176~196 및 남기심(1972) 참조.

3) 논자에 따라서는 ‘(스)ㅂ니다’의 ‘-니-’에서 ‘-는-’의 형태를 찾으려 하기도 하나 위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니-’는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에서도 발견된다.

보여주는 형태들은 우리말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과거 시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가. 순희는 많이 예뻐다. (-었-)  
 나. 어머니는 시장에 갔었다. (-었었-)  
 다. 명숙이가 밥을 먹더라. (-더-)

결국 우리말에서 문법표지를 가진 시제는 과거가 유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과거의 표현 형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과거와 대립하는 무표적인 비과거 시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sup>

혹 이러한 분류 즉 우리말의 시제를 과거와 비과거로 나누는 것은 언어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로 삼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 인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대 언어학의 입장에서 영어의 시제를 여타의 전통적인 분류법이 아닌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 현상에 근거하여 우리말 시제를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관찰 결과일 뿐 아니라 언어 보편성에도 부합하는 분류라고 말할 수 있다.

전통적인 영문법서에서는 라틴어 모델에 따라서 영어의 시제를 현재, 과거, 미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로 된 6-시제체계로 보았다. 이에 반하여 영어의 시제를 과거와 비과거(즉 현재)만으로 된 2-시제체계로 보는 것이 현대언어학의 추세이다.

[영어학사전(1990), 1252쪽]

4) 이것은 부정의 부사 등 부정 요소가 없을 때 긍정이 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 3. 동일 형식 다(多) 의미의 문제

교과서 시제 관련 기술의 두 번째 문제는 동일한 형식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1985년 판 국정 ‘고등학교 문법’은 아래 인용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겠-’이 ‘미래’ 뿐 아니라 ‘추측’, ‘가능성’, ‘의지’ 등 다양한 양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양태적 의미가 ‘미래’외의 여타 시간 범주와도 관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겠-’에 대한 이러한 관찰과 기술은 이후 간행된 문법관련 교과서 대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1. (가) 내일도 비가 오겠다.  
 (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다) 나도 그 정도의 문제는 풀겠다.

위의 문장에 나타나는 ‘-겠-’이 미래 시제이다. 사건시가 모두 발화시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형태소는 단순히 미래 시제 이외에 여러 가지 양태적(樣態的) 의미도 나타낸다. 11-(가)의 ‘오겠다’에는 추측, 11-(나)의 ‘가겠습니다’에는 의지, 11-(다)의 ‘풀겠다’에는 가능성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12. (가) 지금은 광주에도 눈이 오겠다.  
 (나) 진해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겠다.

위의 문장에서와 같이, 미래 시제의 ‘-겠-’은 현재의 사건이나 과거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도 쓰인다. 12-(가)의 ‘오겠다’는 현재의 일, 12-(나)의 ‘피었겠다’는 과거의 일에 대한 추측이다.

[고등학교 문법(1985), 101쪽]

위와 같은 기술 태도는 실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인 만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 형식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위와 같은 문법 기술은 무엇보다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적어도 ‘-겠-’에 관한 한 이러한 기술 내용은 통찰력 있는 관찰의 결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sup>5)</sup>

1985년에 간행된 국정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아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제와 관련해서도 이중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앞의 현재 시제의 형태는 3과 같이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할 때에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4. (가) 나는 내일 밤차로 떠난다.

(나) 지구는 태양을 돈다.

(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4-(가)는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예정된 일을 표시한다. 그러한 시제적 성격은 시간 부사 ‘내일’에 의해 분명해진다. 4-(나), (다)는 반복되는 동작이나 사물의 항구적 속성을 의미하는 말인데, 4-(가)와 함께 많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용법이다.

[고등학교 문법(1985), 96쪽]

즉 위의 책은 현재의 형태가 항구적인 사실이나 예정된 미래 또한 표현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많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라는 보충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아마도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문법을 갖 배우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임에 분명하다.

하나의 언어 형식이 여러 가지 의미 내용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한한 현상들을

5) 이익섭·임홍빈(1983, 176~177) 참조.



제한된 언어 요소로 표현하자면 다의성은 불가피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불가피성은 주로 어휘 요소에 적용된다. 문법 요소의 경우 추상화된 문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의성을 가져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문법 요소 역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의적인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문법을 연구하는 문법학자는 특정 문법 요소가 가진 추상화된 단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일한 의미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연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 장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말에 현재나 미래 시제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겠-’의 의미를 미래와 양태의미로 나누거나 현재형이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와 비과거가 대립되는 시제 체계에서는 현재와 미래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상대시제 설정의 문제

시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서 우리는 아래 인용문에서와 같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시제 외에 특정 상황이 놓인 상황시를 기준으로 한 이른바 ‘상대시제’를 발견할 수 있다.

基準時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앞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때, 즉 發話時가 基準時가 된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을 다른 한 基準時와 구분하여 絶對基準時(absolute time reference)라 하고 發話時가 아닌 어떤 다른 상황의 때로 삼은 基準時를 相對基準時(relative time reference)라 한다. .... 이처럼 相對基準時에 의한 시제를 相對時制(relative tense)라 하고, 發話時, 즉 絶對基準時를 기준으로 하는 시제를 絶對時制(absolute tense)라 한다.

[이익섭·임홍빈(1983), 179~180쪽]

위와 같이 절대시제 외에 상대시제를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철수는 어제 일을 하시는 삼촌을 도왔다.

위 예문 (4)에서 주절의 시제는 ‘-았-’을 통해 뚜렷한 과거로 표현되었다. 반면 동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하시는’에는 현재 관형형으로 알려진 ‘-는’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발화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관형형으로 알려진 ‘-는’의 사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반면, 주절 사건을 기준으로 한 상대시제를 도입할 경우 주절 사건과 동일한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현재 관형사형 ‘-는’이 사용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대시제의 개념은 1985년 판 국정 ‘고등학교 문법’에도 다음과 같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다소 복잡한 문장은 발화시만으로 시제가 잘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다.

2. 영숙이는 어제 청소하시는 어머니를 도와 드렸다.

2의 ‘청소하시는’의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하면 과거이다. ‘도와 드렸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문장의 시제가 발화시 이전이므로 관형사형의 시제도 또한 과거가 된다. 그러나, ‘청소하시는’의 시제를 전체 문장의 시제와 관련시켜 보면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로 해석된다.

[고등학교 문법(1985), 95쪽]

그러나 절대시제 외에 상대시제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문법을 그만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일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적인 문제 역시 지

니고 있다.

위 예문에서 관형사형의 시제가 상대시제로 해석되었다면 이러한 해석은 관형사형이 사용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그 환경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문들의 경우 밑줄 친 관형사형의 시제를 주절의 시제, 즉 과거를 기준으로 한 현재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sup>6)</sup> 또한 어떤 경우에 절대시제로 해석되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경우에 상대시제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5) 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유적들은 모두 수세기 전에 세워졌습니다.

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5년 전에 지어졌어.

필자는 상대시제가 갖는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제를 삼분하는 관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4)와 같은 예문의 이해를 위해 상대 시제의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와 같이 우리말의 시제를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으로 파악하고 ‘-는’을 현재 표현의 요소가 아닌 상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요소로 볼 경우 (4) 등의 예문에 굳이 상대시제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 5. 교과서 간 차이의 문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1985년 간행된 국정의 ‘고등학교 문법’ 이전의 김인정 교과서들의 상대적인 편차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당시의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직접 출제하고 시행하는 ‘대학입학 본고사’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이를 가장 잘 반영한 문법 교과서를 찾

6) 문숙영(2009), 88쪽 참조.

아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까지 짊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새로운 국정의 문법 교과서가 집필되고 1985년에 드디어 그 간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는 이른바 ‘대학입학 본고사’가 없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EBS 방송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교과서들이 서로 차이를 드러낸다면 이러한 차이 또한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필자는 현재 검인정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들에 나타난 시제 기술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1>

	교과서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D
기준시점	발화시	발화시	발화시	발화시
현재	동사에서 선어말어미 ‘-는’, 관형사형 ‘-는’. 형용사 등에서 선어말어미 안 씀, 관형사형 ‘-ㄴ’ 시 간부사어.	A와 동일	A와 동일	형용사 등에서 선어말어미를 안 쓴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음. 그 외는 A와 동일.
과거	선어말어미 ‘-었-’, ‘-았었-’, ‘-더-’ 시간부사어. 동사에서 관형사형 ‘-ㄴ’, 형용사 등에서 관형사형 ‘-던-’	A와 비교하여 선어말어미 ‘-더-’와 관형사형 ‘-던-’에 대한 언급이 없음.	B와 동일.	A와 비교하여 ‘-던-’과 시간부사어에 대한 언급 빠짐.

미래	선어말어미 ‘-겠-’, 관형사형 ‘-ㄴ’, 복합형 ‘-ㄴ 것’, 시간부사어.	선어말어미 ‘-겠-’, 관형사형 ‘-ㄴ’, 시간부사어.	A와 동일.	선어말어미 ‘-겠-’, 관형사형 ‘-ㄴ’, 복합형 ‘-ㄴ 것’, 시간부사어.
기타	‘-겠-’과 ‘-ㄴ 것’의 양태의미 언급.	복합형 ‘-ㄴ 것’의 양태의미 언급 ‘-았-’의 현재 관련 표현 및 양태의미 언급.	‘-겠-’과 ‘-ㄴ 것’의 양태의미 언급. ‘-았-’의 현재 관련 표현 및 양태의미 언급. 선어말어미 ‘-더-’의 기능을 서법 중 회상법으로 설명.	‘-겠-’의 양태의미 언급.

위의 표를 통해 기준시 및 현재 시제에 관한 4종 교과서의 기술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른바 ‘미래 표지’의 양태적 기능을 기술한 점을 비롯하여 미래 시제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과거 시제에 대한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 차이는 선어말어미 ‘-더-’ 및 관형사형 ‘-던’에 대한 기술 여부 그리고 선어말어미 ‘-았-’의 현재 관련 의미 및 양태적 기능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더-’ 및 ‘-던’과 관련하여서는 교과서 A만이 이들을 모두 언급하고 있을 뿐, 나머지 3종의 교과서에서는 이들 중 하나만을 기술하거나(교과서 D)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교과서 B, 교과서 C) 그 대신 교과서 C는 ‘-더-’의 기능을 ‘참고’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서법’의 하나인 ‘회상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설명을 고등학

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서법(敍法): 시제, 동작상 이외에도 넓은 의미에서 시간 표현으로 다루는 것으로 서법이 있다. 서법은 ‘너는 밥을 다 먹었느냐?’에서와 같이 ‘-느-’에 의한 직설법, ‘그는 밥을 다 먹었더냐?’에서의 ‘-더-’에 의한 회상법 등이 있다.

‘-더-’, 및 ‘-던-’과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형태들이 명백히 과거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어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에서는 이들을 모두 일종의 과거 표현 요소로 기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선어말어미 ‘-었-’은 아래 (6가)에서와 같이 현재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표현을 만들 수도 있으며, (6나)에서처럼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다.

(6) 가. 너 엄마를 꼭 닮았구나.

나. 숙제를 안 해왔으니, 너 이따가 선생님한테 훈났다.

과거를 표현하는 문법 요소로 기술되는 ‘-었-’이 갖는 이러한 예외적인 용법은 2002년 간행된 국정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탐구’라는 제목의 심화학습 문제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다음 자료로 과거 시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탐구하여 보자.

- 너 누구 닮았니? 저는 엄마를 닮았어요.
- 나는 조금 전에 왔고, 경숙이는 지금 왔어.
- (방 안에 막 들어서면서) 늦었어요. 죄송해요.
-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넌 내일 학교 가면 혼났다.
- 또 넘어졌니? 이렇게 흉터가 많으니 너 이 다음에 장가는 다 갔다.

● 위 문장에서 ‘-았-/었-’이 사용된 부분을 모두 찾아보자.

● ‘-았-/-었-’의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자.

[고등학교 문법(2002), 179쪽]

그리고 현행 ‘독서와 문법’ 4종 교과서 중 2종(B와 C)의 교과서에서는 이들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2종(A와 D)의 교과서에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었-’의 이러한 용례들을 설명하다 보면 이를 과거 표현 요소로 기술하는 데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용례가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인 만큼 이들 내용을 교과서에 담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다.

## 6. 맺음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말 시제에 관해서는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들만을 선택해 교과서에 담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시제가 우리말의 문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교과서에서 시제를 제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는 현행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의 뿌리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두 권의 국정교과서와 현행 ‘독서와 문법’ 4종 교과서에 나타난 시제 기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현행 교과서들이 과거 편찬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은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법의 모든 영역이 그리하듯이 시제에 대한 연구도 최초의 국정 문법 교과서가 만들어진 1985년 이후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학계의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반영해,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면서도 오류가 쉽게 발견되지 않고 학

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 관련 교과서들이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인정 교과서의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교과서 사이의 편차도 조정을 통해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부담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문법교과서, 국정, 검인정, 문제, 해결방안, 시제, 과거, 비과거, 동일형식 동일의미, 상황시, 상대시제, 편차 줄이기

### 참고 문헌

- 교육부(1985-1990), 『고등학교 문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2-2010), 『고등학교 문법』, 두산.
- 남기심(1972), 현대 국어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55-57(합병호).
- 남기심·고영근(1985-2011), 『표준국어문법론』, 탐출판사.
- 문숙영(2009), 『한국어의 시제 범주』, 태학사.
- 박덕유(2004), 현행(제7차) 文法 교과서 내용 분석,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89-139쪽.
- 박영목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 성낙수(2004), 국어 문법 교육의 문제점,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141-160쪽.
- 윤여탁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미래엔
- 이관규(2004), 문법 교과서의 변천,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45-88쪽.
- 이남호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 이병규(2006), 문법 영역의 내용 선정 방법 연구, 『문법교육』4, 한국문법교육학회, 95-130 쪽.
- 이삼형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최현배(1937-1984),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최현배(1969-1978), 『새로운 말본』, 정음사.

허재영(2004), 문법 교육과정 변천, 『문법교육』1, 한국문법교육학회, 1-43쪽.

허재영(2006), 문법 교육의 내용과 교수-학습 이론 변천사, 『문법교육』4, 한국문법교육학회, 29-64쪽.

이정택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전화번호: (02) 970-5417

전자우편: jtlee@swu.ac.kr

투고일: 2013. 9. 23

심사일: 2013. 10. 1 ~ 10. 19

게재 결정: 2013. 10. 22

**Abstract****Describing Korean Tense in Textbooks  
- focussing on government-designed and current textbooks**

Lee, Jungtag

(Seoul women's University)

Tense is one of the important grammatical categories in Korean. So we should not omit this when we describe Korean Grammar. There are so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is category. As a natural consequence, it is so difficult to describe tense in Korean grammar textbooks and there are currently many problems in them.

In this paper, I analysed how Korean tense is described in Korean grammar textbooks, focusing the first and last government-designed grammar textbooks and the current officially authorized textbooks. I have finally found out problems as the following;

1. The sub-categorization of tense as present, past and future
2. One grammatical form with multiple meanings
3. Introducing relative time reference
4. The discrepancies among textbooks

I also proposed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1. We should sub-categorize Korean tense into past and non-past.
2. We should describe one form by one meaning as much as we can.

3. We don't have to introduce relative time reference to Korean tense.
4. We should try to minimize the discrepancies among textbooks.

**Key words:** grammar textbooks, government-designed, officially authorized, problems, solutions, tense, past, non-past, one form with one meaning, relative time reference, minimizing discrepancies